

1. 시각장애인 보행권을 위협하는 요소

① 1km당 보행 불편 44건...장애인 앞에 '장애물' 많다 / 류인하, 경향신문, 2021-04-08

<https://www.khan.co.kr/local/Seoul/article/202104082131005>

- 시각장애인들에게 블라드, 횡단보도 턱, 음향신호기 이용 불편은 큰 위협임.

서울시 '교통약자 보도환경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은 서울시내 보도 평균 1km당 44건의 불편을 겪었다. 조사 항목은 보도 평탄성과 지장물(시설물, 창고, 수목 등) 존재 여부, 횡단보도 턱 낮춤·점자블록 설치 여부,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신호등 잔여시간표시기,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블라드) 설치 여부 등 5개였다.

조사 결과, 총 7만 4,320건이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교통약자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횡단보도 턱 낮춤과 점자블록 시설 관련 불편이 전체의 40.5%(3만114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횡단보도 진입부에는 휠체어·유아차 이용자 등이 불편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단차를 2cm 이하로 해야 하고,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점자블록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35.4%, 2만6330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19.5%, 1만4525건) 순으로 지적됐다.

② 배려 없는 방역조치, 장벽 더 키워 / 이창우, 경남도민일보, 2021-04-21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59213>

- 손가락으로 점자를 읽는 것을 가로막는 승강기 항균필터

코로나19 상황이 2년째 이어지면서 비접촉·비대면 원칙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이자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만지고, 밟고, 두드리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장애인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졌다. 점자와 손가락을 가로막는 승강기 항균필터도 그중 하나다.

허 지회장은 건물 승강기 버튼에 붙어 있는 필터를 가리키며 "시각장애인은 '열림' '닫힘'이나 층수가 적혀 있는 점자를 손으로 만져 승강기를 이용하지만, 필터가 인식을 어렵게 만든다"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확산 이후 거의 모든 승강기에 항균필터가 붙어 있는데, 사무실처럼 매일 가는 곳은 버튼 위치를 기억하고 있어 상관없지만, 낯선 곳에서는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

③ "은통 다 노란색"...'엘로카펫'에 가려진 장애인의 눈 / 이청초, KBS뉴스, 2021-04-21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67418>

- 노란색 삼각형 모양의 엘로카펫으로 시각장애인들이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도로 가운데 노란색 점자 블록을 따라 걸던 시각장애인이 건널목 부근에서 머뭇거립니다. 노란색 블록이 사라지고, 길 전체가 노랗게 변한 탓입니다. 점자블록을 찾기 위해 들고 있던 지팡이를 펴 길을 더듬어 보지만, 결국 못 찾고 주변에 도움을 청합니다.

[임조성/시각장애1급 : "저시력자들은 지팡이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럴 때 의존하는 게 저런 점형 블록인데, 전혀 대비가 되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보행하는데..."]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까지. 건널목 부근에 어린이 보호구역인 노란색 '엘로카펫'을 앞다퉈 설치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점자블록은 기존 보도블록과 색깔이 확연히 구분되도록 설치해야 하는데, 보이는 것처럼 이곳은 구분 없이 모두 노란색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④ 장애인, 횡단보도 '부분 턱 낮춤' 진땀... 교통약자 안전 위협 / 김보람, 경기일보, 2021-06-06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6026>

- 턱 낮춤 구간의 폭이 좁고 경사까지 가팔라 시각장애인에겐 오히려 위험 요소로 작용
턱 낮춤 구간 바로 옆 높은 구간에 점자블록을 설치한 탓에 시각장애인은 자칫 발을 헛디디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시각장애인 A씨(50)는 “한림병원을 자주 다니는데, 점자블록이 턱 높은 곳에 있어서 경사로인 줄 알고 걷다가 넘어진 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점자블록으로 횡단보도 등 보·차도를 구분하는데, 점자블록상으로는 턱낮춤 구간을 알 수 없어 도로로 잘못 떨어질까 걱정”이라고 했다.

이 같은 문제로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부분턱낮춤 보도를 전체턱낮춤 방식으로 개선하고 있다. 횡단보도의 폭만큼 턱을 낮추고, 턱낮춤 구간 전체에 점자블록을 설치했다.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도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횡단보도와 같은 폭으로 한다고 규정해 전체턱낮춤 보도를 지침으로 한다.

⑤ 아무 데나 놔두는 전동킥보드...“시각장애인에겐 지뢰밭” / 이유민, KBS뉴스, 2020-11-23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54368&ref=A>

- 길거리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시각장애인에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임
중증 시각장애인 이차용 씨는 두 달 전 길 위의 점자 역할을 하는 '유도블록'에 놓인 전동킥보드에 발이 걸려 넘어져 치아가 깨졌습니다. 허리 높이까지 오는 자전거와 달리, 전동킥보드는 딱 성인 발목만큼의 높이라 걸리면 대부분 넘어집니다. 아무 데나 세워둔 전동킥보드로 인한 민원이 이어지면서 지자체와 운영업체는 뒤늦게 시각장애인 점자 유도블록 위나 건물목 앞,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 10m 이내를 피한 곳으로 주차 제한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2. 보행편의시설 실태

① 점자블록 엉터리 수두룩, 시각장애인 보행권 ‘머나먼 길’ / 김용락, 경남신문, 2021-04-19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49343>

- 법으로 정해진 점자블록 설치 규정이 있음에도 미흡하게 설치된 곳이 많음.

도심 거리는 장애인들을 위해 보도·도로 인접지, 횡단보도 등에 점자블록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시각장애인들의 눈 역할을 하는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곳이 많아 이들의 최소한의 조건인 보행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단편적인 예로 창원시 의창구의 한 횡단보도의 예를 볼 수 있다. 횡단 보도와 줄이어 하나로 설치돼야 할 블록은 두 갈래로 나뉘 설치돼 있었고, 가운데에는 연석이 우뚝 솟아 있었다. 송 지회장은 “제대로 횡단했다면 경사진 연석을 지나 점자블록이 느껴져야 하는데 갑작스레 90도 경사의 연석이 느껴지니 당황스럽다”며 “순간 방향을 잘못 잡아 횡단보도를 벗어나 도로 위를 걸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㉔ **점자블록과 멀고 가로수에 막혀 음향신호기 '있으나마나'** / 신심범, 국제신문, 2021-04-19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10420.33003005763>

- 음향신호기의 적절한 설치 기준이 없어 시각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시각장애인의 횡단보도 보행을 돕는 음향신호기 대부분이 횡단보도 앞 점자블록과 떨어진 곳에 설치돼 이용에 불편함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향을 안내하는 신호음도 인도와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경우가 적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음향신호기는 적절한 입지 등 설치 기준이 따로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건널목과 떨어진 화단에 신호기 스피커가 달려 있거나, 점자블록에서 한참 벗어난 곳에 신호기 버튼이 설치된 경우가 적지 않다.

---> 대구도 이러한 상황이다.

대구 곳곳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점자블록 설치실태 '엉망' / 채원영, 매일신문, 2019-07-21

<http://news.imaeil.com/Society/2019071110235490948>

- 음향신호기 버튼조차 찾기 어려운 현실

21일 찾은 달서구 두류테니스장 입구 건널목에는 유도블록이 음향신호기까지 연결돼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은 음향신호기 버튼조차 찾기 어려웠다. 일부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에서 배포한 리모컨을 통해 음향신호기를 작동할 수는 있지만, 이를 소지하지 않은 대다수 시각장애인은 음향신호기 버튼을 찾아 누르기가 쉽지 않다.

장애물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운 곳도 있었다. 달서구 성서우체국네거리와 서구 중리네거리, 평리광명네거리 등은 유도블록이 연결돼 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횡단보도와 음향신호기 사이에 가로수와 전봇대, 블라드 등이 설치돼 있어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을 위협하고 있었다.

㉕ **사방이 장벽...장애인 이동권 아직 '미흡'** / 정민규, KBS뉴스, 2021-04-20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67083&ref=A>

- 도시철도 역마다 통일성 없이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어 철도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도시철도 역도 건널목과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역마다 통일성 없이 지어진 탓에 처음 가는 역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인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역의 점자 안내도의 경우 이렇게 공사 난간 너머에 있어 시각장애인이 필요할 때 정작 사용할 수 없습니다.

[김문희/시각장애인 : "여기는 정지선인데 바로 앞에 (교통카드를) 찍고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쪽으로 가야 할지 이쪽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㉖ **시각장애인에 위협 주는 주차장 출입로...점자 없고, 경보장치 미흡** / 민현배, 경기일보, 2021-01-20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1913>

- 주차장 진·출입로에 보도가 끊기거나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개선이 필요

1월 20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회숙)이 수도권 10개소의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 100개소를 조사

한 결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전시설이 미흡해 사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25개소는 차량 진·출입로의 보도가 끊겨 시각장애인이 보행 중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었다.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57개소에는 점자블록이 설치안 돼 보행 시 지팡이의 촉감으로 동선을 파악하는 시각장애인이 차량 진·출입로를 인지하지 못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컸다. 점자블록이 설치된 43개소 중에서도 22개소는 재질·규격이 부적합하거나, 유지관리가 미흡했다.

3. 대구시 내의 시각장애인 복지정책(편의시설) 현황

① 대구시, 시각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지능형 음향신호기 140대 설치” / 박태우, 경향신문, 2021-05-13

<https://www.khan.co.kr/local/Daegu/article/202105131700001>

- 대구시가 시각장애인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에 지능형 음향신호기 140대를 설치함.

대구시는 보행수요가 많은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 35곳에 사물인터넷(IoT)을 적용한 지능형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140대를 시범 설치했다고 5월 13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지능형 음향신호기는 IoT 전용회선을 사용해 음향신호기의 동작 상태와 고장 유·무에 대해 담당자가 PC 또는 모바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또 음향크기 등을 원격 조정할 수 있어 음향신호기 유지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3년 간에 걸쳐 기존 490곳에 설치된 2466대의 시각장애인용 일반 음향신호기도 지능형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2019년부터 IoT 모듈만 장착하면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② 유동인구·대중교통 이용많은 대구 중구,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 나선다 / 이주형, 매일신문, 2019-10-30

<https://news.imaeil.com/Society/2019102816055941789>

- 훼손되거나 표준에 맞지 않는 점자블록을 교체하고 버스 정류장 바닥에 휠체어 대기석을 표시하여 이동권을 보장

이번 시설 개선은 대구시가 조사한 2018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토대로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과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가장 열악한 부분은 점자블록 미설치·부적절 관리, 장애인 보행 공간 확보 부분이었다"며 시설 개선 의지를 밝혔다.

중구청은 동성로 CGV 대구한일 앞, 약령시 건너 등 지역 내 48곳 버스정류장 내 훼손되거나 표준에 맞지 않는 점자블록을 교체하고, 정류장 바닥에는 휠체어 마크가 표시된 휠체어 대기석을 표시한다.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류장 내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옮기는 작업도 한다.